대한불교천태종의 종교 정체성과 수행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종교학 전공
03250@aks.ac.kr

Ⅰ. 머리말
Ⅱ. 종단 등록과 기원 찾기
Ⅲ. 소의경전의 확대와 현실 인식
Ⅳ. 의례와 수행의 변화
Ⅴ. 맺음말

Ⅰ. 머리말

한국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등 다양한 불교 종단이 있다. 이처럼 특정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불교 종단을 '종파 불교'라고 하는데, 이런 종파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을 나름대로 특성화해서 지역 정서에 맞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파 불교는 종교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는 종교학자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1] 주로 특정 종단과 관련된 학승이나 일반 불교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종교학자가 종파 불교에 관심을 두지 않는 주된 이유는 종파 불교에 관한 연구가 종교 비판이나 호교(護教)를 위한 연구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대한불교천태종에 관해 비판이나 호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 글의 연구 대상은 대한불교천태종(이하 한국 천태종 또는 천태종)이다. 한국 천태종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한국 천태종의 등장이 한국불교사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천태종의 등장으로 조선(1392-1910)의 종파 불교 통폐합 정책과정에서 1424년(세종 6)에 사라진 천태종이라는 종명이 한국불교사에 다시 드러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 천태종은 조계종으로 대표되는 선불교 전통과 함께 현재까지 유일하게 천태종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천태종의 교세 규모를 고려해도 한국 천태종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천태종은 1967년 종단 등록 당시까지 언론에 박준동과 구인사(救仁寺) 정도만 노출될 정도로 교세 규모가 작은 편이었다.[2] 그렇지만 1967년 1월에 불교단체로 문교부 인가를 받은 이후에 급성장하여 승려 · 사찰 · 신자 수 등에서 조계종, 태고종에

---

1) 종교학 분야에서 천태종에 관한 연구는 3편 정도이다. 윤용복, 「대한불교천태종의 역사와 특성」, 강돈구 외 3인, 『한국 종교교단 연구 II』(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고병철, 「대한불교천태종의 의례와 신앙 - 구인사와 대광사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3(2013); 강돈구, 「대한불교천태종의 정체성 형성과정」, 『신종교연구』 31(2014). 중국 학자 중에는 '김훈, 「대한불교천태종의 종교교육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 24(2011)'이 유일하다.

2) 「중풍 患者 療養 - 丹陽 小白山골짜기 救仁寺」, 《경향신문》, 1967년 3월 10일자, 3면.

이어 세 번째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3)]

한국 천태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미진한 부분은 1967년 종단 등록을 기점으로 구인사 공동체가 종교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1967년 종단 등록은 구인사 공동체에게 종교 정체성의 방향을 제시한 사건이다. 종교 정체성의 방향은 구인사 공동체가 천태교학에 입각한 수행 공동체로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수행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수행법의 정착은 구인사 공동체가 천태종이라는 종교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1967년 종단 등록을 기점으로 구인사 공동체가 천태종이라는 종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례와 수행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구인사 공동체가 종단 등록 이후 자신의 역사적 기원을 어떻게 설정했고, 그 지향점을 향해 어떤 측면의 변화를 모색했는지, 그리고 의례와 수행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가 한국 천태종뿐 아니라 종파 불교의 정착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II. 종단 등록과 기원 찾기

1. 한국 천태종의 등장 배경과 자료

한국 천태종은 박준동(朴準東, 1911-1974. 4, 이후 上月祖師)이 한국전쟁 후에 소백산 자락에 지은 삼간모옥(三間茅屋)에서 확대된 구인사를 총본산으로 두고 있다. 구인사를 지은 상월조사는 천태지의의 교관(敎觀)과 대각국사의 유법(遺法)을 가르치면서 구인사 공동체의 구심점을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구인사 공동체는 1966년 8월에 '천태종대각불교(天台宗大覺佛敎)'를 창립하고, 1962년에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4)]에 따라 1967년 1월부로

---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2012), 23-37쪽. 천태종의 교세 규모는 사찰 약 350개, 승려 약 400명, 신자 약 250만 명 등이다. 조계종의 경우는 사찰 약 2,800개, 승려 약 1만 2,000명, 신자 약 2,000만 명, 태고종의 경우는 사찰 약 3,280개, 승려 약 7,400명, 신자 약 640만 명 등이라고 한다.

4) 〈불교재산관리법〉(제정 · 시행 1962. 5. 31. 법률 제1087호 / 폐지 1988. 5. 29. 법률

문교부에 불교단체로 등록하였다. 이는 한국 불교사에서 천태종이 종명으로 재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등록 당시의 종명은 '천태종대각불교포교원'이었지만, 구인사 공동체는 1969년 12월에 '대한불교천태종'으로 바꾸어 문화공보부의 허가를 받고, 1970년 1월에 종명 선포식을 거행하였다.[5]

상월조사 중심의 구인사 공동체가 이미 조선시대에 사라진 천태종을 종명으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 배경은 천태종에 관한 정보가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유포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도 '천태종 대각사'나 '천태종 수험도(修驗道)'의 포교소 등 일본의 천태종 사찰이 조선에 설립되고[6], 의천이나 그 가르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7] 천태종에 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통된 바 있다.

구인사 공동체가 1969년 말에 종명을 '대한불교천태종'으로 개칭한 배경은 무엇일까? 그 배경은 1962년에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이 등장했듯이, 1960년대 이후에 불교 종단이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불교단체로 등록하면서 종명에 '대한불교'를 포함시키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8] 구인사 공동체의 종명 변경에도 당시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종명의 변경은 한국 천태종의 사회적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69년 3월에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된 신흥종교 명단'을 보면, '천태종대각불교'가 포함된 바 있다.[9] 그렇지만

제3974호);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제정 · 시행 1962. 8. 22. 각령 제939호 / 폐지 1988. 5. 28. 대통령령 제12457호). 1988년 5월부터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어 불교 관계 단체의 등록제가 전통사찰만 당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5) 문화공보부, 『한국의 종교』(1989), 131쪽; 천태종 교전 간행위원회 편, 『불멸의 燈明』(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2000), 100쪽, 149-151쪽;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 · 공포 · 시행 1988. 12. 6 / 2009. 12. 4).

6) 국사편찬위원회의 〈국내외항일운동문서〉, '一八. 宗教及類似宗教', 『治安狀況(昭和 13年, 江原道)』; 『朝鮮總督府官報』 1940. 4. 27; 1940. 6. 19; 1940. 7. 26; 1941. 6. 21; 1942. 7. 1.

7) 「朝鮮 古蹟 硏究, 日本學者 間에」, 《동아일보》, 1922년 12월 7일자, 2면; 「朝鮮史 槪講(四十四)」, 《동아일보》, 1923년 11월 17일자, 1면; 「朝鮮史 槪講(八十二)」, 《동아일보》, 1924년 2월 19일자, 3면; 「朝鮮文化史上으로 본 佛教의 影響(十四)」, 《동아일보》, 1925년 10월 24일자, 3면; 「朝鮮歷史 講話(12)」, 《동아일보》, 1930년 1월 25일자, 4면; 「朝鮮文化와 佛教(二)」, 《동아일보》, 1934년 7월 9일자, 4면 등.

8) 「宗教財團(1) 佛教」, 《매일경제》, 1969년 9월 6일자, 3면.

9) 「유사종교의 단속」, 《경향신문》, 1969년 3월 26일자, 5면. 당시 '불교계 신흥종교'는 23개였다.

종명을 바꾼 이후부터 한국 천태종이 불교계 신종교로 보도되는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10]

실제로 종명 변경 이후에 천태종은 종파 불교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천태종은 상월조사의 열반 직전인 1974년 4월경에 19개 종단 모임인 '한국불교회(이후, 한국불교협의회)'에 가입하였고[11], 1979년 7월경에 7개 종단 모임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가입한 바 있다.[12] 이는 천태종의 위상이 종명 변경 이후에 불교계에서 점차 격상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천태종의 등장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구인사 공동체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종단 등록은 구인사 공동체가 천태교학의 구현이라는 과제를 향해 모종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쉽게도 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일차 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상월조사의 열반 시점인 1974년 6월(음, 4월) 이전에 발간된 〈종헌〉, 『천태종약전(天台宗略典)』, 『천태종성전(天台宗聖典)』, 『천태종교전(天台宗教典)(Ⅰ)』 등 4건의 자료가 있어 연구가 다소 가능한 상황이다.[13]

2. 역사적 기원 설정: 천태종과 조사신앙

한국 천태종의 일차 자료를 보면, 구인사 공동체는 1967년 종단 등록에서부터 자신의 역사적 기원을 중국 천태종에서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천태종은 1971년판 〈종헌〉에서 본존(本尊)을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태조(太祖)를 수대(隋代, 581-618)의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 종조(宗祖)를 고려 제11대 문종의 넷째 아들로 1086년경에 송대(宋代, 960-1279)

---

10) 종단 성립 이후의 천태종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韓·日 불교세미나」, 《경향신문》, 1971년 7월 22일자, 5면; 「韓國青年會 등 10月維新 支持성명」, 《동아일보》, 1972년 10월 31일자, 2면; 「各界 支持 聲明」, 《경향신문》, 1972년 11월 2일자, 1면; 「알림」, 《동아일보》, 1973년 6월 14일자, 6면; 「防衛誠金 모으기 運動」, 《경향신문》, 1974년 5월 23일자, 1면. 특히, 1973년 6월부터는 《동아일보》의 「알림」 코너에 천태종 서울지부의 정기법회(월례법회)가 소개되고 있다.

11) 「佛教협의회로 再出帆, 單一指導체제를 택해」, 《경향신문》, 1975년 4월 18일자, 5면.

12) 「宗團協 창립, 佛教 7개 종파 참가」, 《경향신문》, 1979년 7월 25일자, 5면.

13)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 1969. 2. 1./공포 1970. 1. 5./개정·공포 1971. 10.); 『天台宗略典』(1970. 1. 5. 初版, 1975. 10. 20. 參版); 『天台宗聖典』(1971. 8. 10.); 『天台宗教典(Ⅰ)』(1972. 1. 14.).

천태교학을 수입한 의천(義天, 1055-1101), 그리고 중흥종주(重興宗主)를 상월조사로 명시하고 있다.[14]

자신의 역사적 기원을 중국 천태종에서 찾는 부분은 1971년판『천태종성전』교사편(敎史篇)이 '종명의 유래, 중국천태종사, 천태종의 창립, 고려의 천태종 개립(開立), 천태종의 재건(再建)'으로 구성된 점[15], 그리고 1975년판『천태종약전』역사편이 '중국 천태종, 한국 천태종, 천태종 재흥'으로 구성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6] 2009년판 〈종헌〉에서도 창도(唱導)-개립(開立)-재흥(再興)의 구도로 천태지의-대각국사-상월원각대조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17]

흥미로운 부분은 구인사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적 기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신앙'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 천태종이 '지심귀명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를 포함시켜 예불문을 팔정례로 만들었다는 점, 불당에 상월조사의 진영이나 상을 별도로 봉안한다는 점, 각종 법회나 행사에서 '상월대조사법어'를 봉독한다는 점, 상월조사의 묘역을 적멸보궁으로 호칭한다는 점 등에서 조사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5년에 중국불교협회와 함께 중국 천태산에 '중한천태종조사기념당'을 건립하여 삼대 조사상(의천 · 천태지의 · 상월원각대조사)을 봉안하고, 2000년 11월에 구인사의 가장 상단에 '대조사전'을 낙성하고, 2008년경 구인사에 천태종역대조사전을 건립하고 2층에 '천태종 삼존조사'라는 용수보살(150-250)과 천태지의(좌)와 의천(우)을 포함하여 중국과 한국의 조사 36명의 진용(眞容)을 봉안한 것도 조사신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18]

구인사 공동체가 조사신앙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

14)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 · 공포 1971. 10.), 제4조. 구원실성 석가모니불은 다음 참조: 鳩摩羅什 譯,『妙法蓮華經』, 大正藏 9, 42b, 42c(善男子. 我實成佛已來. […] 然我實成佛已來久遠若斯. 但以方便敎化衆生. 令入佛道作如是說).

15) 천태종성전편찬회 편저,『천태종성전』(대한불교천태종, 1971), 615-685쪽.

16) 천태종총본산 구인사 편저,『천태종약전』(불교사상사, 1975), 141-166쪽.

17)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 · 공포 2009. 12. 4.) 제1조(宗名) ②항, 제4조(本尊 및 宗祖), 제5조(重創祖). 석가모니불-대각국사-상월원각대조사의 관계는 본존-종조-중창조의 구도로 설명되고 있다. 다만, '태조(太祖)'라는 표현은 1994년판 〈종헌〉부터 보이지 않는다.

18) 고병철,「대한불교천태종의 의례와 신앙-구인사와 대광사를 중심으로」,『종교연구』 73(2013), 19-24쪽; 대한불교천태종 편집,『天台宗歷代祖師殿』(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 2008), 12-168쪽.

볼 수 있다. 하나는 종단의 역사적 기원을 천태종에서 찾으려는 데 있다. 이는 상월조사를 천태종 조사의 계보에 두면서 '조사 중의 조사'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상월조사를 석가모니, 천태지의, 대각국사의 계보로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에서 조사신앙이 석가모니를 종파의 종조나 중창조를 동일시하는 기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월조사는 '붓다'의 반열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소의경전의 확대와 현실 인식

1. 소의경전의 확대

구인사 공동체는 종단 등록과 함께 『법화경』 중심의 소의경전을 선택하고 있다. 1971년의 소의경전은 『법화경』, 『법화경』과 천태교학에 근거하여 종단에서 자체 편찬한 『천태종성전』, 그리고 '법화경 주석서'였다.[19] 1971년판 『천태종성전』 교상편에 서술된 오시팔교(五時八教) 교판론에서도 『법화경』은 최상위 가르침이다.[20] 예를 들어, 화의사교설에서 『법화경』은 화엄시의 『화엄경』, 녹원시의 아함 · 방등 · 반야 등보다 최상위에 있는 가르침, 화법사교설에서 『법화경』은 삼장(三藏: 經 · 律 · 論)에 해당하는 장교, 삼승(三乘: 聲聞 · 緣覺 · 菩薩)에 통하는 통교, 보살을 위한 별교와 달리, 삼제원융한 실재관의 가르침인 원교에 해당한다.[21]

종단 등록 이후, 구인사 공동체는 천태교학을 확대 수용하는 방식으로 소의경전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994년의 소의경전에는 『천태종성전』과 '법화경 주석서'가 빠지고 법화3대부와 『천태4교의』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에는 소의경전에 기존의 '『묘법연화경』, 법화3대

---

19)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 · 공포 1971. 10.), 제5조. 다만, 『천태종성전』이 1971년에 간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는 소의경전의 범위가 『법화경』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 위의 책, 529-557쪽. 오시팔교론에서 오시(五時)는 화엄 · 녹원 · 방등 · 반야 · 법화열반, 화의사교(化儀四教)는 頓 · 漸 · 秘密 · 不定教, 화법사교(化法四教)는 藏 · 通 · 別 · 圓教를 말한다.

21) 박형철, 『天台教義 要綱』(선문출판사, 1993), 57쪽, 102-104쪽, 132쪽.

부, 『천태4교의』'뿐 아니라 '법화3부경, 천태5소부, 『대지도론』' 등이 첨가되어 있다. 2009년판 〈종헌〉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22]

제3조(소의경전) ① 본 종단은 다음의 경율론을 소의경전으로 한다.

1. 『妙法蓮華經』 2. 法華三大部: 『法華玄義』, 『法華文句』, 『摩訶止觀』 3. 法華三部經: 『無量義經』, 『妙法蓮華經』, 『普賢觀經』 4. 天台五小部: 『金光明經玄義』, 『金光明經文句』, 『觀音玄義』, 『觀音義疏』, 『觀無量壽經疏』 5. 『大智度論』 6. 『天台四敎儀』 7. 기타 경, 율, 논을 참고할 수 있다.

② 念佛 持呪 등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도 정진 시는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결과적으로 종단 등록 당시에 설정한 소의경전은 구인사 공동체가 『법화경』을 "부처님 일대의 설법 가운데 최후의 결론"[23]이라고 믿고, 종교 정체성을 천태종으로 규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의경전의 확대는 구인사 공동체가 천태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천태교학의 수용 방향으로 소의경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승려가 천태교학을 더 익혀야 하고[24], 그 과정에서 천태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천태교학의 확대와 현실 인식

천태교학의 확대 수용 경향은 간행물의 내용과 종지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1년판 『천태종성전』의 성전편(聖典篇)에는 『법화경』, 교상편에는 교상(敎相)에 관한 총설(總說)과 오시팔교론이 있다. 교리편의 '교의 총설(總說)과 각설(各設)'에는 천태교학의 주요 논리와 개념이 담겨 있다. 총설에는 천태종의 요지가 "三諦의 原理에 依하여 萬法의 實相·現象을 바로 관찰하여 三惑을 끊고 三智를 증득하여 三德을 성취하므로 大覺의 佛位에 이르게 된다는 것"에 있다는 점, 각설에

22)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공포 1994. 12. 20.) 제3조(所依經典);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공포 2009. 12. 4.) 제3조. 밑줄 친 부분은 1994년판 〈종헌〉에 없던 부분으로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23) 천태종성전편찬회 편저, 앞의 책, 319쪽, 321쪽.

24) 한국 천태종에 따르면, 현재 강원에서는 천태종의 소의경전인 묘법연화경을 비롯하여 불교학개론, 율장, 초발심자경문, 육묘법문 등을 학습한다. 대한불교천태종 홈페이지(http://www.cheontae.org/).

는 원융삼제, 일념삼천의 실상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불타관, 일심삼관과 단혹성불(斷惑成佛), 육즉성불(六卽成佛) 등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25]

한국 천태종의 간행물을 보면 점차 천태교학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2판 『천태종교전(Ⅰ)』의 '종정교시 해설' 부분에는 천태종의 유래와 함께 종지가 있다. 종정교시 해설 부분에 천태종의 종지가 포함된 이유는 '종정교시'에 '천태교관, 천태일승의 대도' 등의 표현이 들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26] 그리고 1975년판 『천태종약전』의 교리편에는 한국 천태종의 종기(宗旗)에 관한 천태교학적 해설, 『천태사교의』에 입각한 천태종의 교의가 서술되어 있다.[27]

다만, 1971년판 〈종헌〉을 보면, 천태교학에 관한 인식이 종단 성립 초기부터 구인사 공동체에 보편화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1971년판 〈종헌〉에는 종지가 『법화경』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28] 천태교학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1994년판과 2009년판 〈종헌〉의 종지에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교학의 내용이 첨가되고 있어 천태교학의 확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1994년판 〈종헌〉을 보면, 종지는 혁범성성(革凡成聖)인 개인 완성, 전예현정(轉穢現淨)인 불국토 건설, 원융무애(圓融無碍)인 법성체 결합(法成體 結合)을 위해 각각 삼관(三觀)으로 삼혹(三惑)을 끊고 삼지(三止)에 머물러 자리이타(自利自覺), 이타타각(利他他覺), 자리이타 각행원만(自利利他覺行圓滿)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29]

---

25) 천태종성전편찬회 편저, 앞의 책, 575-614쪽; 육즉 개념은 다음 참조: 智顗 說, 『妙法蓮華經玄義』, 大正藏 33, 686a(欲免上慢當聞六即世間. 相常住理即也. 於諸過去佛. 若有聞一句名字即也. 深信隨喜觀行即也. 六根清淨相似即也. 安住實智中分證即也. 唯佛與佛究盡實相. 究竟即也). 이 책의 교리편에서는 '법화삼대부', '천태오소부'가 소의경전이고,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보살영락경(菩薩瓔珞經)」·「대지도론」 등이 교의(教義)의 근거이며, 『천태사교의』가 천태 입문서로 중요하고, 『법화경』이 근본 성전(聖典)임을 밝히고 있다(같은 책, 529-557쪽, 542-543쪽, 561-574쪽). 한편, '성전편'에는 『대승본생심지관경(大乘本生心地觀經)』과 『화엄경(華嚴經)』의 내용이 담겨 있다.

26) 천태종성전편찬회, 『천태종교전(I)』(대한불교천태종, 1972), 서문, 32-33쪽, 84-91쪽.

27) 천태종총본산 구인사 편저, 앞의 책, 12쪽, 41-92쪽. 종기(宗旗)에서 3개의 원은 삼제원융, 금강저(金剛杵)는 중도, 금강저의 황색은 원융무애를 의미한다고 한다. 한편, 『천태종약전』의 1971년판 부록에는 『천태사교의』가 포함되어 있다.

28)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공포 1971. 10.), 제5조(宗旨).

29)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공포 1994. 12. 20.) 제2조(宗旨).

천태교학의 확대 수용 경향은 구인사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천태교학의 현실관과 해결책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천태종이 현 시대가 붓다의 가르침[敎法]과 수행자의 수행(修行)과 깨달음[證果]이 모두 있는 정법시(正法時)나 깨달음만 없는 상법시(像法時)가 아니라 수행과 깨달음이 모두 없는 말법시(末法時)라는, 즉 사회적 혼란이 만연하고 인간의 정신·윤리가 타락한 시대라는 현실 진단을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30] 이런 현실 진단은 현실의 혼란을 극복하여 『법화경』「수기품」과 「오백제자수기품」에 묘사된 이상적인 불국정토를 실현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31]

Ⅳ. 의례와 수행의 변화

1. 『법화경』 중심의 의례와 조사신앙의 반영

한국 천태종은 종단 성립과 함께 의례를 문서화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971년판 『천태종성전』 의식편에는 재가교도를 위한 조석 의례 목록이 있다. 그 내용은 정삼업진언(正三業眞言, 7번)-정법게송(淨法偈頌)-정법계진언(淨法界眞言, 7번)-헌향-헌향진언(3번)-다게-예경문[九頂禮]-발원문·개경게(開經偈)·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회향게·참회문·참회게(懺悔偈)·참회진언(懺悔眞言)·세제죄장진언(洗除罪障眞言)·무량억겁멸죄진언(無量億劫滅罪眞言)·멸죄게로 구성된 '법화독송'-준제송(准提頌)-호신진언(護身眞言)-준제진언(准提眞言)-발원문-원성취진언-보회향진언-사홍서원(四弘誓願)으로 구성되어 있다.[32]

1972판 『천태종교전(Ⅰ)』의 신행편에는 삼귀의(三歸依: 久遠實成佛陀·『實相妙法蓮華經』·法華會上 僧伽), 예경문(禮敬文: 九頂禮), 독경의식,

30) 『법화경』에서 말법시는 시대, 탐·진·치의 번뇌, 중생, 견해, 수명의 혼란에 직면한 오탁악세(五濁惡世)를 의미하며, 이것이 비유품에 있는 화택(火宅)의 비유로 설명되기도 한다. 오탁악세와 화택 비유는 鳩摩羅什 譯, 『妙法蓮華經』, 大正藏 9, 7b(舍利弗. 諸佛出於**五濁惡世**. 所謂劫濁煩惱濁眾生濁見濁命濁.); 『妙法蓮華經』, 大正藏 9, 12b-16b 참조.

31) 차차석, 「『법화경』에 나타난 행함과 구원의 상관성 고찰」, 『대각사상』 4(2001), 292-295쪽.

32) 천태종성전편찬회 편저, 앞의 책, 509-526쪽.

사홍서원으로 구성된 의례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독경의식은 정삼업진언(7번)-발원문-개경게(開經偈)-개법장진언(3번)-독송요문-정삼업진언(7번)-준제송-정법계진언(3번)-호신진언(3번)-준제진언-발원문-원성취진언(3번)-보회향진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독경요문과 정삼업진언의 중간에는 '준제다라니수행법'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33]

1975년판『천태종약전』의 예경편에는 불전(佛殿)에 기도나 재(齋)를 올릴 때 절을 하면서 삼불을 청하는 거불(擧佛), 개경게부터 시작되는 송경문(誦經文), 조석례부터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되는 예불문, 그리고 공양 때 외우는 오관게(五觀偈)가 서술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송경문은 개경게, 법화경 약찬게(略纂偈), 그리고 '청정법신비로자나불'부터 마하반야바라밀에 이르는 십념(十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불문은 조석례(朝夕禮)-삼정례(三頂禮)-삼귀의(三歸依)-귀의수행문(歸依修行文)-지심참회(至心懺悔)-지심권청(至心勸請)-지심수희(至心隨喜)-지심회향(至心廻向)-지심발원(至心發願)-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사홍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34]

이런 의례 목록을 보면 한국 천태종은 '개경게, 개법장진언, 참회게, 참회진언,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준제진언, 정삼업진언' 등 대부분의 사찰 의례에서 독송되는『천수경(千手經)』의 내용을 의례 목록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례 목록의 유사성은 한국 천태종이 다른 종파 불교와 소통하거나 불교 종단으로 인정을 받는 데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법화경』관련 내용을 의례에 포함시킨 부분은 한국 천태종이 다른 종파 불교의 경우와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특히 구정례(九頂禮)로 구성된 예경문이나 구원실성불타(久遠實成佛陀)·『실상묘법연화경』·법화회상 승가(法華會上 僧伽)로 구성된 삼귀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천태종의 의례는 1971년판『천태종성전』, 1972판『천태종교전(Ⅰ)』, 1975년판『천태종약전』이후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예경문의 내용이 팔정례로 바뀌었고, 법회 때 상월조사의 법어가 낭독되

33) 천태종성전편찬회, 앞의 책, 135-161쪽.
34) 천태종총본산 구인사 편저, 앞의 책, 17-40쪽.

고 반야심경이 합송되고 있다. 의례의 변화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조사신앙의 반영이다.[35]

불교 의례의 기능은 불교 세계관이나 특정 종교 정체성의 구현, 개인별 수행의 집단적 실천, 종단 내의 위계나 위치의 반복적 확인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천태종의 의례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하나는 다른 불교 종단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 다른 하나는 『법화경』이나 조사신앙 중심으로 천태종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진언의 배제와 관음주송의 채택

일반적으로 종파 불교에서는 의례와 함께 수행을 중시하고 있다. 수행은 '번뇌의 소멸과 이상 상태의 완성을 위해 고도의 집중을 실천하는 노력'이고[36], 사바세계와 열반, 중생과 붓다라는 구도에서 깨침의 체득 또는 '증득'을 통해 '무명의 현실에서 이상적인 상태로 가려는 불교 실천의 전반'이다. 여기서 이상적 상태는 근본불교의 유여열반(有餘涅槃)·무여열반(無餘涅槃)이든, 근본불교 이후의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든 깨침의 의미가 포함된 '열반'으로 표현되고 있다.[37]

수행을 통해 증득에 이르는 과정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신해행증(信解行證)', 즉 수행단계를 붓다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수행(실천)하여, 깨침을 체험하여 얻는 과정으로 구분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38] 또한 유식학이나 불교교육에서 강조하는 훈습(薰習) 개념에서도 무명으로 말미암은 과거의 훈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바른 습성을 만드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39]

---

35) 고병철, 앞의 논문, 14-25쪽.

36) 정광균, 「念佛修行과 涅槃의 구체화에 대한 一考」, 『정토학연구』 13(2010), 106-108쪽; 한태식·강동균, 「정토교의 수행방법론」, 『정토학연구』 11(2008), 54쪽, 93쪽. 선(禪) 중심의 자력수행과 여래의 본원력이나 자비력에 의지하는 염불수행을 의미하는 타력수행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첩된다. 이런 맥락에서 '염불선수행'이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37) 차차석, 「『법화경』에 나타난 행함과 구원의 상관성 고찰」, 『대각사상』 4(2001), 278-283쪽, 288쪽.

38) 신명희, 「『華嚴經』의 禪觀 小考」, 『한국선학』 32(2012), 39-45쪽, 62-63쪽.

39) 이지중, 「훈습의 교육적 의의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10-1(2000), 245-246쪽; 이지중, 「훈습의 기능에 대한 교육적 탐색-唯識學적 언어관과 聞熏習을 중심으로」, 『종교

종파 불교에 따라 수행법은 다르지만[40] 공유되는 부분도 있다. 공유 부분은 삼업의 청정을 위한 십선계(十善戒)와 이를 요약했다는 칠불통계게(七佛通戒揭) 등의 계율, 삼학(三學)과 팔정도(八正道), 자리이타(自利利他)와 자각각타(自覺覺他)를 동시에 주장하는 사섭법(四攝法)과 육바라밀(六波羅蜜), 『화엄경』의 10바라밀, 해탈을 위한 수행법인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 등이다.[41] 그 외에 사경(寫經), 108배나 3,000배도 흔히 공유되고 있다.

한국 천태종도 의례와 함께 천태교학에서 말하는 수행을 중시한다. 천태교학에서는 삼학 가운데 특히 선정·지혜, 즉 번뇌를 그쳐[止], 제법실상을 통찰[觀]하는 지관 수행법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삼종지관(三種止觀: 漸次·不定·圓頓止觀) 가운데 특히 원돈지관을 닦기 위한 10승관법(十乘觀法), 10승관법의 수행 자세에 따른 사종삼매(四種三昧: 常坐·常行·半行半坐·非行非坐三昧)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마하지관』과 『천태소지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42]

천태교학에서 수행을 강조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그 배경은 다른 종파 불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인간론에서 찾을 수 있다. 천태교학에서는 인간을 본래부터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학연구』 21(2005), 258-259쪽. 훈습은 향기(무명으로 오염된 생각·인식현상)가 옷(마음·아리야식계)에 지속적으로 스며들면, 나중에 이 옷이 향기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 인간의 마음(인식)이 연기에 의해 변이되는 과정을 말한다.

40) 이행구, 「화엄의 수행」, 『淨土學硏究』 11(2008), 104-134쪽. 종파 불교의 경우를 보면, 정토종에서는 칭명염불(稱名念佛)을 통한 왕생극락(往生極樂), 진언종에서는 주력수행(呪力修行)을 통한 즉신성불(卽身成佛), 선종에서는 좌선수행(坐禪修行)을 통한 견성성불(見性成佛)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화엄사상에서는 보살의 순차적 수행 단계로서 10신(十信)·10주(十住)·10행(十行)·10회향(十廻向)·10지(十地)·등각(等覺)·묘각(妙覺)을 합친 52위(位)를 말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 10신과 등각·묘각을 제외하면 화엄의 수행 단계가 40위라는 견해도 있다. 화엄의 52위는 智顗 說, 『妙法蓮華經玄義』, 大正藏 33, 787c(從初十信十住十行十迴向十地等覺妙覺聖位深淺) 참조.

41) 주요 개념은 佛陀耶舍·竺佛念 譯, 『長阿含經』, 大正藏 1, 57a(謂**十善行.** 身不殺盜婬. 口不兩舌惡罵妄言綺語. 意不貪取嫉妬邪見); 『法華儀法』, 大正藏 77, 268b; 智顗 說, 『妙法蓮華經玄義』, 大正藏 33, 695c(又**七佛通戒偈**云. 諸惡莫作衆善奉行. 自淨其意是諸佛教.); 佛陀耶舍·竺佛念 譯, 『長阿含經』, 大正藏 1, 51a; 瞿曇僧伽提婆 譯, 『中阿含經』, 大正藏 1, 0641c(居士子. 有**四攝事.** 云何爲四. 一者惠施. 二者愛言. 三者行利. 四者等利); 法顯 譯, 『大般涅槃經』, 大正藏 1, 193a(**三十七道品**法. 所謂四念處. 四正勤. 四如意足. 五根. 五力. 七覺支. 八聖道分. 汝應修習精勤思惟. 此法能令到解脫處) 참조.

42) 십승관법은 박형철, 앞의 책, 136-137쪽, 149-150쪽, 155쪽; 諦觀 錄, 李永子 譯註, 『天台四教儀』(경서원, 2006), 294-295쪽 참조. 『천태소지관』에 서술된 지관 수행을 위한 10가지 법문은 구연(具緣), 가욕(訶欲), 기개(棄蓋), 조화(調和), 방편행(方便行), 정수행(正修行), 선근발(善根發), 각지마사(覺知魔事), 치병(治病), 증과(證果)이다.

일상의 미혹된 한 생각에도 모든 세계를 갖추고 있어[一念三千], 성문 · 연각 · 보살에서 일불승(一佛乘)으로 회삼귀일(會三歸一)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43] 이런 인간관에는 인간이 수행을 통해 변화된다는 전제가 담겨 있으므로 수행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구인사 공동체가 종단 등록 이전부터 천태교학의 지관수행법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종단 등록 이전의 구인사 공동체에는 다양한 수행법이 있었다. 구인사 공동체를 이끌었던 상월조사도 고향인 삼척에서 백일 동안 천수다라니 주송을 한 바 있고, 한국 · 중국의 불교 사찰 · 성지를 다니며 천태종에 뜻을 두는 과정에서 『천수경』 전체를 독송하거나 천수다라니를 주송하거나 '옴마니반메훔'의 육자진언(六字眞言)과 준제진언을 포함하여 여러 진언을 외운 바 있다. 그리고 귀국 후에 건강식품의 복용과 함께 주문 등을 시혜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1945년에 구인사 터로 이동하여 5년 동안 천수다라니 주송을 하고, 1951년에 천수다라니 주송을 하다가 무상대도를 성취하고 1952년에 구인사를 창건했다고 한다.[44]

구체적으로 구인사 공동체는 구인사 초기 시기인 1945-1955년 사이까지 주로 천수다라니나 『천수경』 전체를 주송했고, 대중의 운집기(雲集期)인 1955-1965년 사이, 특히 1960년 전후에 구인사 공동체의 근기와 상황에 맞추어 준제진언, 육자진언, 궁궁강강(弓弓降降), 관음주송, 지장보살 주송, 미륵보살 주송 등 다양한 주문을 염송하였다고 한다.[45]

그렇지만 구인사 공동체는 종단 창립 이후부터 천태종의 중창을 표방하면서 지관 수행을 수용한 바 있다. 이는 종단 초기의 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1년판 『천태종성전』의 실행편에는 일원상관(一圓相觀)을 포함한 여섯 가지의 불성관(佛性觀), 준제다라니 백만독, 오심정관(五停心觀: 不淨觀, 慈悲觀, 因緣觀, 數息觀, 念佛觀), 『화엄경』 「십지품」의 십선도(十善道), 『심지관경』 제2 「보은품」의 사은(四恩), 육화(六和) 사회규범 등이 담겨 있다.[46] 1975년판 『천태종약전』 수행편

---

43) 박형철, 위의 책, 69-72쪽, 174-180쪽.

44) 김세운, 「상월 조사의 생애와 교화 방편」, 『한국선학』 15(2006), 669쪽. 676-680쪽.

45) 위의 논문, 684-690쪽. '궁궁강강'을 주송하도록 한 것은 당시 영주 지역의 보천교도(普天敎徒)를 교화하려는 방편이었다고 한다(김세운, 같은 논문, 689-690쪽).

46) 천태종성전편찬회 편저, 앞의 책, 420쪽. 『천태종성전』에 서술된 준제다라니의 표기는 "나무 사다남 삼약 삼부따 구지남 다야 타 '옴 자례 주례 준제 사바하'"이다(같은 책, 420쪽). 현재 천수경에 담긴 준제진언은 "나무 사다남 삼먁삼못다 구치남 다냐타 '옴

을 구성하고 있는 '견혹(見惑)·사혹(思惑), 진사혹(塵沙惑), 무명혹(無明惑), 삼관법(三觀法), 단혹절차(斷惑節次), 수행방법, 수행중 현상, 염불에 의한 관념법(觀念法), 관음기도' 등의 목차도 삼혹(三惑)을 각각 삼제(三諦)를 통찰하는 삼관법으로 끊어야 한다는 『마하지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47]

이런 수행법의 변화과정을 보면, 구인사 공동체는 종단 성립 이후 지관 수행을 수용하여 천태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 한국 천태종이 공식화한 수행법은 관음주송과 주경야선이며, 그 지향점은 한국 천태종의 3대 지표(대중·생활·애국불교)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

3. 수행의 내용과 지향점: 관음주송, 주경야선, 삼대 지표

한국 천태종이 실천하는 수행의 첫 번째 방식은 관음주송이다. 한국 천태종의 신도는 매일 밤 10시 전후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방 말사나 회관 또는 집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관음주송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합송(合誦)의 경우에는 승려나 신도회 간부가 일정 시간마다 목탁을 치고 선창하면 대중이 따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도뿐 아니라 승려도 어떤 소임을 맡든지, 밤에는 관음주송을 통해 지관수행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하안거와 동안거 기간에 신도와 함께 각 한 달간 수행해야 하고, 동안거 이후의 '승려 안거' 기간에 종정의 지도하에 해제일까지 약 55일간 관음주송을 해야 한다.[48]

관음주송이 한국 천태종의 수행법으로 정착된 시기는 언제일까? 앞서 지적했듯이, 종단 성립 이전의 구인사 공동체에는 관음주송뿐 아니라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3번)"이다. 『화엄경』「십지품」'이구지법문' 부분에는 이구지(離垢地) 단계의 수행에서 지킬 십선계의 내용과 과보, 십악업의 죄보가 담겨 있다(같은 책, 370-377쪽, 388쪽). 사은 개념은 般若 譯, 『大乘本生心地觀經』, 大正藏 3, 297a(世出世恩有其四種. 一父母恩. 二衆生恩. 三國王恩. 四三寶恩. 如是四恩. 一切衆生平等荷負) 참조. '중생은'이 '스승 은덕'으로 표현, '국왕은'이 '사회 은덕'으로 표현되어 있다(같은 책, 389-391쪽). 육화 개념은 智旭 解, 『佛說阿彌陀經要解』, 大正藏 37, 365c(僧者具云僧伽. 此翻和合衆. 理和則同證無爲解脫. 事和則有六種. 所謂身和同住. 口和無諍. 意和同悅. 見和同解. 戒和同修. 利和同均也) 참조. '六和 사회규범'은 불교교단의 화합을 위한 여섯 가지 계율인 육화경(六和敬)을 말한다(같은 책, 383-395쪽).

47) 천태종총본산 구인사 편저, 앞의 책, 93-140쪽.

48) 대한불교천태종 홈페이지(http://www.cheontae.org/).

다양한 수행법이 있었다. 그렇지만 종단 등록 전후인 1965-1974년 사이, 특히 1967년에 '천태종대각불교'를 중창하면서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정하고 기존의 다양한 수행법을 '관세음보살' 칭명주송(稱名呪誦)으로 통일했다고 한다.[49] 다만, 한국 천태종이 관음주송을 종단 수행법으로 공식화한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일차 자료는 1975년판 『천태종약전』에 국한되어 있다. 이 자료의 수행편에 '관음기도'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에 서술된 관음기도의 방법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50]

>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공덕과 이익은 중생 가까이에 베풀어지는 것이고 또 중생은 쉽게 효험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관음기도의 특징이 있다. […] 그러므로 천태종도는 언제나 부처님전에 마음을 잘 정하고 모든 번뇌를 끊어 무심(無心)으로 기도하되 가능한 밤새 정진하기를 계속하면 우리의 소원(所願)과 희망이 성취되고 부처님의 커다란 공덕과 이익을 받아 생활이 밝게 향상될 수 있다.

관음주송의 절차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 번째는 결가부좌(結跏趺坐)나 반가부좌(半跏趺坐) 자세로 앉아 양 무릎 위에 엄지를 손바닥으로 감싼 금강권(金剛拳)을 올린다. 두 번째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가볍게 감은 후에 몸 안의 탁한 기운을 모두 내뱉는 기분으로 두세 차례 깊게 숨을 토한다. 세 번째는 합장한 채 붓다에게 귀의하고 발원 또는 축원(祝願)한다. 네 번째는 무심(無心) 상태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을 여러 번 부르고, 다 내쉬면 짧게 숨을 들이쉰 뒤에 다시 길게 내쉬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과정을 반복한다.[51] 세 번째 부분까지는 관음주송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음주송의 방법은 염염불망(念念不忘), 고성염불(高聲念佛), 일심정진(一心精進)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에 따라 관음주송으로 청정한 마음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불법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잊지 말 것, 관음주송을 할 때 바르게 앉은 자세로 하고 호흡을 '깊고 길게' 하면서 차츰 소리를 높일 것, 그리고 시간이나 수량을 정해 일심으로 할 것 등이 강조되고 있다.[52]

---

49) 김세운, 앞의 논문, 684-690쪽.
50) 천태종총본산 구인사 편저, 앞의 책, 140쪽.
51) 최기표, 「천태종의 관음주송과 그 이론적 토대」, 『동아시아불교문화』 3(2009), 57쪽.
52) 광도, 『광도스님과 함께 배우는 관세음보살』(대한불교천태종, 2013), 75-88쪽, 112쪽, 179-206쪽.

한국 천태종은 관음주송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마음을 열어 '관세음보살을 보고', 동시에 모든 집착을 버리고 모든 대상의 자재를 관하는[觀自在], 다시 말해 '관세음보살처럼 보는 것'의 두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53] 또한 관음주송을 『수능엄경(首楞嚴經)』에서 말하는 이근원통(耳根圓通), 즉 고성(高聲)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그 소리를 관[聞·思·修]하여 심마(心魔, 妄心)를 물리치고 진심(眞心)을 찾으면 수능엄정(首楞嚴定)을 이루어 모든 진리에 통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도 보고 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4]

관음주송을 하면 잡념을 여의게 되고 정심이 차츰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일 밤마다 주송을 끊임없이 하면 번뇌 망상이 차츰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던 망상도 떠오르지 않게 되고 마음이 차츰 맑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맑은 마음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마음공부라고 합니다. 관음주송을 통해 맑은 마음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천태종에서 관음주송은 '일심청정 관음정진'이라는 표현처럼 '일심청정'을 위한 수행이다.[55] 그와 관련하여 상월조사는 관음주송을 불교 수행의 중심 위치로 격상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56] 그렇지만 구인사 공동체가 종단 성립 이후에 기존의 다른 칭명수행이나 진언주송을 관음주송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음주송은 『법화경』의 관음신앙을 토대로 천태종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천태종이 실천하는 수행의 두 번째 방식은 주경야선(晝耕夜禪)이다. 한국 천태종은 교관겸수(敎觀兼修)의 맥락에서 주경야선을 강조하고 있다. 주경야선은 종무원장 이하 모든 승려가 낮에 각자 맡은 일을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선방에 모여 참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57]

---

53) 김영덕, 「관세음보살 33응신의 교리적 의미」, 『관세음보살 33응신의 종합적 탐구』(대한불교천태종 황해사, 2011), 143쪽.

54) 광도, 앞의 책, 75-88쪽, 112쪽, 167쪽. 인용문은 '같은 책, 180-181쪽'.

55) 조진덕 발행, 『관세음보살 33응신의 종합적 탐구』(대한불교천태종 황해사, 2011), 36쪽.

56) 권기종, 「관세음보살 응신과 염불수행」, 『관세음보살 33응신의 종합적 탐구』(대한불교천태종 황해사, 2011), 91쪽.

57) 「중창 30년 천태종 구인사 성역화사업」, 《경향신문》, 1996년 2월 4일자, 13면.

한국 천태종에서는 종단 성립 이전부터 주경(晝耕)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하여, 한국 천태종은 1971년 5월 말 당시에 임야 506정보(町步)[58], 백목(柏木)과 낙엽송 약 70만 본(本)의 조림(造林), 밭(田) 2만 9,500평과 논(畓) 1만 3,000평의 경작지(自耕地)를 소유한 바 있다.[59]

주경의 실천방식은 크게 농업, 조림(造林)사업, 사회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1967년 이전에 구인사 인근에 임야 5,000평에 약초를 재배한 바 있다.[60] 현재도 구인사 근처에 약 1만 평 규모의 영춘농장과 하리목장이 있고, 구인사에서 매일 아침공양과 점심공양 직후에 농장으로 갈 신도를 모집하여 승려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구인사의 경우와 다르지만, 말사에서 주경을 실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부천의 천화사에서는 밭을 임차하여 주말농장 형태로 천화농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국유임야(國有林野) 대부(貸付)를 포함하여 1968년부터 1977년까지 관목을 베는 하예(下刈) 작업과 함께 총 726헥타르(hectare)에 낙엽송 · 잣나무 · 전나무 · 오동나무 · 밤나무 약 150만 본을 조성한 바 있다. 그리고 사회사업의 경우에는 1969년부터 도로 보수와 확장과 개설, 교량 개설, 수해 복구 등을 직접 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주목할 부분은 주경을 교관겸수의 전통 가운데 관(觀)으로 본다는 점이다. 한국 천태종은 농장을 주경야선과 작복불교(作福佛教)를 위한 대표적인 수행처, '농장수행'을 농장의 흙과 자연이 주는 교훈 속에서 소아(小我)를 버리고 점차 대아(大我)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61] 한국 천태종의 종정도 '천태종 신자들이 밤새워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며 수행 정진하는 것이나, 농장과 공양간에서 일심으로 일하는 것이 모두 청정한 정심(正心)을 얻기 위함'이라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62] 따라서 교관겸수에서 천태교학이 교(教)에 해당한다면, 관음주송과 주경야선은 지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58) 정보(町步)는 땅 넓이의 단위로 1정보는 3,000평이며, 약 9,917.4㎡에 해당한다.
59) 천태종성전편찬회 편저, 앞의 책, 681-684쪽.
60) 「중풍 患者 療養, 丹陽 小白山골짜기 救仁寺」, 《경향신문》, 1967년 3월 10일자, 3면.
61) 대한불교천태종 홈페이지(http://www.cheontae.org/).
62) 「천태종 김도용 종정 최초 인터뷰」, 《한겨레》, 2012년 1월 4일자.

한국 천태종이 주경을 야선(夜禪)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므로 주경은 출가 희망자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에 따라 출가 희망자는 입산 허가 전까지 반드시 배식부(配食部)나 농장에서 속세의 때를 벗는 수행을 해야 한다. 입산 허가를 받아 3년간 행자생활을 할 때도 낮에는 대중식당의 공양 준비, 경내 청소, 농장생활 등의 수행을 하고 밤에는 염불의식과 강원교육을 이수한 후 선방에서 새벽 4시까지 관음주송을 해야 한다. 또한 21일간의 수계교육 이후에 수계식에서 은사(종정)로부터 법명(法名)·도첩(度牒)·계첩(戒牒)·가사·법모를 받아 정식 승려가 된 이후에도 밤에 관음주송을 하면서 낮에 일(소임)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63]

그렇다면 한국 천태종이 관음주송이나 주경야선을 통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1971년의 상월조사 교시문에 명시된 3대 지표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3대 지표의 핵심 내용은 '불교적 이상세계의 구현 또는 지상 불국의 실현'이다.[64] 그와 관련하여 1971년판 『천태종성전』의 실행편에는 수행과 3대 지표의 연관성, '새 불교운동 3대 지표에 따른 3대 실천 강령'의 요목이 실려 있다. 이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65]

표1에는 각 지표와 관련된 요목을 실천하여 네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지표인 대중불교의 실현(民衆·在家·구세주의 불교)은 일원상(一圓相)과 자성(自性)이 본래 청정·진실·지혜·자비·복덕 구족(具足)하다는 불성관을 가지고, '준제다라니' 백만독을 통해 일체 업장을 소멸시켜 불공덕(佛功德)을 성취하고, 오정심관(五停心觀)으로 각각 탐진치 삼독과 번뇌·업보를 다스려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불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인간 개조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할 때 달성될 수 있다는 식이다.[66]

---

63) 대한불교천태종 홈페이지(http://www.cheontae.org/).
64) 천태종성전편찬회, 앞의 책, 서문, 32-33쪽, 84-91쪽.
65) 천태종성전편찬회 편저, 앞의 책, 383-395쪽.
66) 위의 책, 418-419쪽, 434-437쪽.

표1-한국 천태종의 3대 지표, 실천 강령, 당면과제(1971년 자료, *: 부연)

3대 지표	1. 대중불교 실현 (불교의 대중화)	2. 생활불교 실천 (불교의 생활화)	3. 애국불교 건립 (애국운동의 전개)
3대 지표의 요체(要諦)	- 가람(伽藍)불교에서 민중(民衆)불교로! - 출가(出家)불교에서 재가(在家)불교로! - 염세주의불교에서 구세주의 불교로!	- 기복불교에서 작복(作福)불교로! - 우상불교에서 실천불교로! - 유한(遊閒)불교에서 생산불교로!	- 국민도의 재건에 주력 - 사회정화운동에 노력 -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 - 민족중흥과업에 헌신
3대 실천 강령	1. 밝은 자기의 개발 (光明 佛性의 開顯)	2. 밝은 생활의 창조 (광명 생활의 창조)	3. 밝은 사회의 실현 (광명 세계의 실현)
3대 실천 강령 실천 요목 (實踐要目)	- 불성관(佛性觀, *6가지) - 준제다라니(*백만독) - 오정심관(五停心觀: 不淨觀, 慈悲觀, 因緣觀, 數息觀, 念佛觀)	- 십선도(十善道) - 4代 報恩行 ① 어버이: 보은행(報恩行) ② 스승: 사은행(謝恩行) ③ 사회: 사섭도(四攝道) ④ 삼보: 복덕행, 사안낙행(四安樂行)	- 육화(六和) 사회규범 - 밝은 사회 3대 목표 ① 윤택한 경제사회 ② 숭고한 도의사회 ③ 찬란한 문화사회
당면과제	1. 인간개조 [밝은 자기개현의 과업]	2. 도의재건 [밝은 생활 창조의 과업]	3. 사회정화 [밝은 사회 실현의 과업] 4. 복지사회건설 [애국불교 건립의 과업]

Ⅴ. 맺음말

이 글에서는 1967년 종단 등록 이후에 구인사 공동체가 특히 의례와 수행의 변화를 통해 종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한국 천태종의 창립과정과 역사적 기원, 제Ⅲ장에서는 소의경전의 확대와 천태교학의 현실 인식, 제Ⅳ장에서는 의례와 수행의 변화와 그 지향점에 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Ⅱ장에서는 구인사 공동체가 종단 창립과 함께 역사적 기원을 중국의 천태종에서 찾았고, 조사신앙을 강조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월조사를 붓다의 반열에 두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구인사 공동체가 천태교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소의경전의 범위를 늘리면서 천태교학의 현실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을 밝혔다. 제Ⅳ장에서는 구인사 공동체가 『천수경』 관련 의례 목록을 통해 다른

불교 종단과 유사성을 보였지만 『법화경』과 조사신앙을 반영하여 의례를 변화시켜 특성화하였고, 초기의 다양한 진언을 배제하여 관음주송과 주경야선을 공식 수행으로 정착시켰으며, 이를 통해 대중·생활·애국불교라는 삼대 지표의 구현, 즉 지상 불국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다른 불교 종단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구인사 공동체의 경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구인사 공동체가 점차 천태교학의 체계를 갖추면서 천태종이라는 종교 정체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구인사 공동체가 역사적 기원을 중국 천태종에 두고, 소의경전의 범위를 천태교학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천태교학의 세계관을 갖추어가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구인사 공동체가 중국 천태종의 단순 모방이 아니라 기존의 의례와 수행 문화를 천태교학과 연관시키면서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단 창립 시기부터 『법화경』뿐 아니라 『천수경』 관련 의례 목록을 갖추고, 상월조사를 조사신앙 차원에서 의례에 포함시키고, 초기의 다른 진언들을 배제하면서 기존의 관음주송과 주경야선을 종단의 공식 수행으로 선택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음주송은 승려뿐 아니라 신도가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수행포교'라는 말처럼 쉬운 수행이 포교를 쉽게 한다는 장점으로 이어져[67] 천태종의 교세 확장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행이 종파 불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음주송은 주경야선과 함께 한국 천태종의 특징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두 측면을 고려할 때 구인사 공동체는 역사적 기원을 선불교 전통이 아니라 천태교학에서 찾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전통과 천태교학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중국의 천태종을 모방하여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천태종'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이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의 한국 천태종에 관한 연구에서 좀 더 천착할 부분은 역사적 기원을 설정하는 문제, 그리고 수행과

67) 고명석, 「수행포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선문화연구』 3(2007), 57쪽.

참회의 연계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기원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1170년 무신정변 이후에 요세(了世, 1163-1245)가 1216년부터 전개한 백련결사(白蓮結社)의 염불수행 전통이 한국 천태종의 관세음보살 주송으로 정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68]

참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석선바라밀차제법문(釋禪波羅蜜次第法門)』, 『천태소지관』, 『마하지관』의 상관관계를 검토할 때 수행법의 기본 원리가 '계율(계) → 참회 → 수행[定] → 깨달음[慧]의 공식'으로 성립될 여지가 있고, 특히 삼학 수행에서 간과되었던 '참회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69] 혹시 관음주송의 전통을 고려의 백련결사에서 찾는다고 해도 참회를 상징하는 108배나 3,000배의 문화가 다른 종파 불교에 비해 한국 천태종에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태교학뿐 아니라 지관 수행을 참회와 연결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볼 수 있다. 요세도 천태교학을 익힌 후에 매일 53존불(尊佛)에 각각 12번씩의 절을 하면서 참회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

68) 김세운, 「한국 천태종의 염불수행 전통과 그 계승」, 『한국선학』 30(2011), 64쪽.

69) 김종두, 「天台智顗의 念佛思想에 관한 고찰-常坐와 常行三昧를 중심으로」, 『한국선학』 21(2008), 216쪽, 241쪽; 천태 대사 지의 저, 최기표 옮김, 『역주 차제선문』(불광출판사, 2010); 천태 지자대사 저, 윤현로 옮김, 『천태소지관』(운주사, 2011) 참조.

참 고 문 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朝鮮總督府官報』.

대한불교천태종 홈페이지(http://www.cheontae.org/).

〈대한불교천태종 종헌〉(1971년 10월 개정 · 공포);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 · 공포 1994. 12. 20.); 〈대한불교천태종 종헌〉(개정 · 공포 2009. 12. 4.).

〈불교재산관리법〉(제정 · 시행 1962. 5. 31. 법률 제1087호 / 폐지 1988. 5. 29. 법률 제3974호);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제정 · 시행 1962. 8. 22. 각령 제939호 / 폐지 1988. 5. 28. 대통령령 제12457호).

瞿曇僧伽提婆 譯, 『中阿含經』; 鳩摩羅什 譯, 『妙法蓮華經』; 湛然 述, 『法華玄義釋籤』; 般若 譯, 『大乘本生心地觀經』; 法顯 譯, 『大般涅槃經』; 佛陀耶舍 · 竺佛念 譯, 『長阿含經』; 智旭 解, 『佛說阿彌陀經要解』; 智顗 說, 『妙法蓮華經玄義』; 諦觀 録, 『天台四教儀』; 『法華懺法』.

강돈구, 「대한불교천태종의 정체성 형성과정」. 『신종교연구』 31, 2014.

고명석, 「수행포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선문화연구』 3, 2007.

고병철, 「대한불교천태종의 의례와 신앙-구인사와 대광사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73, 2013.

광도, 『광도스님과 함께 배우는 관세음보살』. 대한불교천태종, 2013.

권기종, 「관세음보살 응신과 염불수행」. 『관세음보살 33응신의 종합적 탐구』, 대한불교천태종 황해사, 2011.

김세운, 「상월 조사의 생애와 교화 방편」. 『한국선학』 15, 2006.

_____, 「한국 천태종의 염불수행 전통과 그 계승」. 『한국선학』 30, 2011.

김영덕, 「관세음보살 33응신의 교리적 의미」. 『관세음보살 33응신의 종합적 탐구』, 대한불교천태종 황해사, 2011.

김종두, 「天台智顗의 念佛思想에 관한 고찰-常坐와 常行三昧를 중심으로」. 『한국선학』 21, 2008.

김훈, 「대한불교천태종의 종교교육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 24, 2011.

대한불교천태종 교화원 편, 『불교포교집』. 대한불교천태종, 1983.

대한불교천태종 편집, 『天台宗歷代祖師殿』.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2008.

문화공보부, 『한국의 종교』. 1989.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 2012.

박형철, 『天台教義 要綱』. 선문출판사, 1993.

신명희, 「『華嚴經』의 禪觀 小考」. 『한국선학』 32, 2012.

윤용복,「대한불교천태종의 역사와 특성」. 강돈구 외 3인,『한국 종교교단 연구 II』,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이지중,「훈습의 교육적 의의 연구」.『종교교육학연구』 10-1, 2000.
_____,「훈습의 기능에 대한 교육적 탐색-唯識學적 언어관과 聞熏習을 중심으로」.『종교교육학연구』 21, 2005.
이행구,「화엄의 수행」.『정토학연구』 11, 2008.
정광균,「念佛修行과 涅槃의 구체화에 대한 一考」.『정토학연구』 13, 2010.
조진덕 발행,『관세음보살 33응신의 종합적 탐구』. 대한불교천태종 황해사, 2011.
차차석,「『법화경』에 나타난 행함과 구원의 상관성 고찰」.『대각사상』 4, 2001.
천태 대사 지의 저, 최기표 역,『역주 차제선문』. 불광출판사, 2010.
천태 지자대사 저, 윤현로 역,『천태소지관』. 운주사, 2011.
천태종교전 간행위원회 편,『불멸의 燈明』.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2000.
천태종성전편찬회,『천태종교전(Ⅰ)』. 대한불교천태종, 1972.
천태종성전편찬회 편저,『천태종성전』. 대한불교천태종, 1971.
천태종총본산 구인사 편저,『천태종약전』. 불교사상사, 1975.
諦觀 錄, 李永子 譯註,『天台四教儀』. 경서원, 2006.
최기표,「천태종의 관음주송과 그 이론적 토대」.『동아시아불교문화』 3, 2009.
한태식 · 강동균,「정토교의 수행방법론」.『정토학연구』 11, 2008.

국 문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1967년 종단 등록 이후 구인사 공동체가 종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특히 불교에서 의례와 수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례와 수행의 변화를 중심으로 종교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구인사 공동체가 종단 등록 이후 자신의 역사적 기원을 어떻게 설정했고, 그 지향점을 향해 어떤 측면의 변화를 모색했는지, 특히 의례와 수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는 한국 천태종의 등장 배경, 초기 구인사 공동체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일차 자료, 구인사 공동체가 역사적 기원을 중국 천태종에 두고 조사신앙을 강조한 배경 등을 검토하였다. 제III장에서는 구인사 공동체가 소의경전 범위를 확대하면서 천태교학을 수용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제IV장에서는 구인사 공동체가 『법화경』과 조사신앙을 의례에 반영하는 과정, 다양한 진언을 배제하면서 관음주송을 채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중심 수행 방법인 관음주송과 주경야선이 대중·생활·애국불교라는 삼대 지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인사 공동체는 종단 창립과 함께 역사적 기원을 중국의 천태종에서 찾았고, 조사신앙을 토대로 상월조사를 붓다의 반열에 두고 있다. 둘째, 구인사 공동체는 천태교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소의경전의 범위를 늘려 천태교학의 현실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천수경』 관련 의례 목록을 통해 다른 불교 종단과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법화경』과 조사신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례를 특성화시키고, 초기의 다양한 진언을 배제하여 관음주송과 주경야선을 공식 수행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생활·애국불교라는 삼대 지표의 구현, 즉 지상 불국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967년 이후에 구인사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천태교학의 체계를 갖추면서 천태종이라는 종교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중국 천태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기존의 의례와 수행 문화를 천태교학과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구인사 공동체는

천태교학을 한국 문화에 맞춘 일종의 '한국형 천태종'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이 한국 천태종의 종교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종파 불교의 정착과정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4. 9. 19.
심사일 2014. 10. 22.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상월대조사(上月大祖師, the Great Master Sangwol), 구인사(求仁寺, Guinsa), 공동체(Communities), 천태교학(天台敎學, the Tientai Doctirines), 관음주송(觀音呪誦, Reiterat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주경야선(晝耕夜禪, Working by Day and Reiterat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Night), 종교 정체성(Religious Identity), 대한불교천태종(大韓佛敎天台宗, the Cheontae Order in Korea)

Abstracts

The Religious Identities and Practices of the Cheontae Order in Korea

Ko, Byung-ch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cess that Guinsa(求仁寺) communities have created their religious identity, the Cheontae Order in Korea(大韓佛敎天台宗), since 1967.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about the change of religious identity.

For this, in chapter II, examining the origin building of the Cheontae Order in Korea, I pointed out that Guinsa communities have manufactured their religious identity from China' Cheontae Order and believed that Sangwol(上月), the founder of Guinsa communities, was the Great Master and Buddha. In chapter III, examining the change of main scriptures and books, I insisted that Guinsa communities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ir main scriptures aiming to receive the Tientai doctirines(天台敎學).

Then, in chapter IV, I examined the process that Guinsa communities have changed their rituals and practices towards the Cheontae Order. And, by these, I pointed out that Guinsa communities have formed religious similarities to other Buddhist communities through the Thousand Eyes and Hands Sutra(千手經), and religious differences from other Buddhist communities through the Avalokitesvara invocation practices(觀音呪誦) that was based on the Lotus Sutra (妙法蓮華經), as well as working by day and reiterating Avalokitesvara Bodhisattva at night(晝耕夜禪).

As a result, Guinsa communities have aimed to religious identity based on the Tiantai doctrines in China since 1967. But, combining the Tiantai doctrines and their rituals and practices of the past including faith on Avalokitesvara Bodhisattva and the Cheontae Order' founder, they have been carried out to make the identity of their own religion. Especially, changes of rituals and practices have made Guinsa communities the Cheontae Order in Korea. Viewed from this point, changes of their rituals and practices were strategic tools to create and maintain the self-identity of the Cheontae Order.

I expect to make this article a small contribution to understand religious identity of the Cheontae Order in Korea, and to elucidate relationship between rituals and religious identity.